

4만3천여개 순우리말만 골라 쓰임새 자세히 밝힌 사전

《토박이말 쓰임 사전(전2권)》 나와

4만3천여개 토박이말을 6만여개의 예문으로 제시하고 풀이한 《토박이말 쓰임사전》이 출간됐다. 이 사전에 제시된 예문은 한국 외에도 북한에서 3천여개(6.3%), 중국 조선말 사전에서 2천5백여개(5%)를 옮겨왔고, 옛 소련의 고려어도 65개 옮겨왔다. 이 사전에는 아직 사전에 오른 적이 없었던 1만2천7백여개의 순우리말을 처음 찾아 실었는데, 이는 전체 수록어의 약 30%에 이른다. 180여개 주제어에 따른 낱말발을 보여주고, 뜻이나 형태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780여개의 말을 서로 비교해 다뤘다.

이 사전에는 뿌리도 다르고 말짜임이 전혀 다른 한자말 따위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토박이말들 사이의 상호관계, 말짜임새, 뜻변짐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 토박이 말은 말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말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고 그 감각성까지 익혀야 하는데, 이 사전은 이런 우리 토박이말의 정서적 바탕까지 탐구해 들어간다.

우리 토박이말은 이름씨(名詞) 형태로 쓰이는 한자말과는 달리 그림씨(形容詞), 어찌씨(副詞), 움직씨(動詞) 등에서 많이 발달돼 있고, 문학예술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이 쓰인다. 또한 우리 토박이말은 논리성보다는 감각성이 강한 게 특징이다. 말짜임 또한 한자말처럼 사물의 이치를 따지기도 그 형상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돼 있다. 따라서 낱말 하나 하나는 그 뜻이 분명치 않지만 뜻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런 토박이말의 특성은 뜻풀이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예문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사전이 예문을 광범위한 자료에서 골라 신고 이름을 '쓰임사전'이라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전에는 '우리말의 보고'라 일컫는 홍명희의 《임격정》은 물론

채만식, 김유정 등 토박이말 구사가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이 자주 예문으로 등장한다. 최근 작품으로는 에스런 토박이말을 잘 살려 쓴 김주영(《괘주》), 황석영(《장길산》), 김성동(《국수》) 등도 보이고 박경리(《토

지》)의 토속적인 어휘들도 빠지지 않는다. 이문구, 송기숙 등의 토박이말은 물론 김소진, 심상대 같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예문을 추렸다.

사전을 펼쳐보자. '매지매지'라는 말은 '좀 작은 물건을 여럿으로 따로따로 나누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좀처럼 그 뜻이 와닿지 않는다. 이 항목에는 심상대와 전상국의 소설 문장이 예문으로 올라와 있다. '구름덩이가



이근술·최기호 엮음
동광출판사/A4/1,100면 내외/180,000원(합본)

매지매지 찢어진다' (심상대 <강>), '어머니는 매지매지 가슴에 맺힌 한을 되씹으며...' (전상국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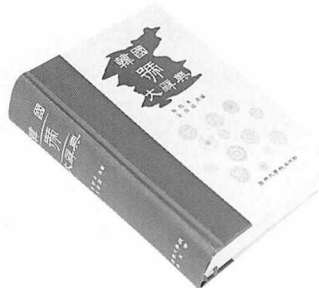
또한 이미 잃어버린 우리 토박이말의 어법도 새로 찾아 실었다. 가령 '데리다'의 경우 지금은 '데리고' '데려'의 꼴로만 쓰이지만 '아이 데린 과부' (채만식 <용동댁>)에서처럼 '데린'이라는 어법도 있었다.

우리말은 순수한 우리말(토박이말)과 한자말로 구성됐다. 우리 사전들은 모두 이 두가지 말을 한데 묶어 편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말은 뿌리와 말짜임 방식이 전혀 다른데다, 워낙 많은 한자말과 외래어 등이 국어사전에 들어와 정작 주인공인 토박이말들이 홀대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국어사전에서 토박이말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게 됐고, 토박이말들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헤아려보기도 쉽지 않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말 가운데 토박이말만을 다루고 그 쓰임새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 이 사전의 발간은 더욱 값진 결실이라 할 만하다.

— 김장근 기자

어 · 뚝 · 을 · 밝 · 히 · 는 · 힘 계명대학교출판부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Tel. 053-580-6231 ~ 33 Fax. 053-583-5213 <http://home.kmu.ac.kr/~press> 이메일: press@kmu.ac.kr



한국 호 대사전 박희영·김남석 공편/4·6배판/양장/1,326쪽/150,000원

역사적인 사실을 구명하거나 어떤 인물을 연구함에 있어 절대적이고도 기초적인 작업이 그 인물의 호를 통해 본명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호사전은 10,000여 명의 호를 수록한 것이 가장 방대한 것이었으므로 자료 부족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털고자 이 사전은 1900년 이전에 출생한 인물들의 호를 대상으로, 10수 년여에 걸쳐 전국의 자료를 조사하여 26,000여 호를 수록하였다.

계명대학교출판부 도서 구입처: 교보, 영등포, 영풍, 을지, 종로, 진솔, 청운(대구), 학원(대구), 동보(부산), 총장(광주), 대훈(대전)